

프로야구 비디오 판독 확대... 프로축구 새 엠블럼 달고 도약

달라지는 2021 그라운드

2020년 그라운드에는 '희망'이 싹트었다. 코로나 19를 딛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개막한 KBO와 K리그는 2020시즌을 무사히 완주했다.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 다시 한번 도전의 무대가 펼쳐진다.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될 시즌, 새로운 변화들도 있다.

◇4월 3일을 기다리는 KBO

KBO는 4월 3일 대망의 2021시즌 막을 연다. 지난해에는 KBO리그 출범 후 가장 늦은 5월 5일 시즌이 시작됐지만 올해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봄은 일찍 찾아온다.

각 구단은 2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며 새 시즌을 준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구단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담금질을 하게 됐다.

KIA 타이거즈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경쟁의 시간을 보낸다.

지난해에도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올 시즌 판정 논란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 대상 플레이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식 야구규칙 5.08(a)에 의거한 3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 ▲주자의 루의 공과 ▲주자의 선행주자 추월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기 위해 태그업 상황에 대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처음 시행된 부상자 명단 제도 수정도 이뤄진다.

부상 선수들의 등록일수를 보장해 충분한 회복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장에서 이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 시즌부터 부상자 명단에 등록된 선수는 최소 10일이 지나야 엔트리에 재등록할 수 있다.

그라운드를 떠나는 선수들을 위한 '엔트리 추가 등록' 제도도 시행된다. 홈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은퇴경기에 한해 엔트리 정원을 초과해도 은퇴 선수의 등록이 가능하다.

엔트리 등록 및 말소 마감 시간은 경기가 없는 날에도 평일 경기와 동일한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했다.

감독·코치 외에 포수가 마운드를 찾을 때도 선수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구 팀을 대상으로 1차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즌인 만큼 고교야구에도 눈길이 쏠린다.

광주 동성고 투수 신현민·내야수 김도영, 광주 진흥고 투수 문동주, 순천 효천고 포수 허인서가 KIA의 마지막 1차 지명 선수로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KBO는 2022년부터는 전면드래프트를 통해 신인선수들을 선발한다.

◇새로운 엠블럼 달고 도약하는 K리그

한국축구연맹은 지난해 11월 K리그 대상 시상식

KBO 부상자 명단에 등록된 선수 최소 10일 지나야 엔트리 재등록

2022년부터는 전면드래프트 시행

K리그1 교체선수 5명으로 늘리고

광주FC-FC서울 사령탑 맞바꿔

구단 경영 고려 승리수당 상한선

2020에서 K리그의 엠블럼을 포함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이하 BI)를 발표했다.

'다이나믹 피치'(Dynamic Pitch)로 새롭게 정의한 BI는 선수들의 역동적인 플레이,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리그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팀도 있다.

2011년 상주상무피닉스로 창단한 상주상무가 지난해 상주와의 연고 계약이 끝나면서 동지를 감전으로 옮긴다. 지난해 K리그1에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장식했던 상무는 올 시즌 김천상무라는 이름으로 K리그2에서 승격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사령탑들의 변동도 눈에 띈다.

광주FC와 FC서울은 공교롭게도 사령탑을 맞바꿔 새 시즌을 보낸다. 광주 K리그2 우승과 K리그1 파이널A를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이 계약 해지를 하며 서울로 떠났고, 서울의 감독대행을 맡았던 김호영 감독으로 사령탑 공석을 채우면서 '사령탑 트레이드'가 이뤄졌다.

지난해 K리그의 마지막 순간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장식했던 울산에서는 김도훈 감독을 대신해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홍명보 감독과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인 이영표는 강원FC 대표이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코로나19는 올 시즌에도 그라운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리그1에서는 최대 5명까지 교체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결정에 맞춰 K리그도 올 시즌 3명에서 5명까지 교체 선수를 늘렸다. 대신 경기 흐름을 위해 교체 횟수는 3회(하프타임 교체는 별도)로 제한하고, 출전선수 명단도 기존 18명으로 유지한다.

또 구단들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2021시즌부터 내년까지 '승리수당' 상한선을 둔다.

K리그1은 경기당 100만원, K리그2는 경기당 50만원으로 제한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수당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K리그1 최대 10억원, K리그2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1년 주요 스포츠 이벤트

1월

4일 2020 도쿄올림픽 D-200 (개최지: ● 일본)

13일 ~ 31일 핸드볼 세계남자선수권 (● 이집트)

1월 ~ 11일 2020 FIFA 클럽 월드컵 (● 카타르)

8일 ~ 22일 테니스 호주 오픈 (● 호주)

11일 ~ 14일 스피드스케이팅 2021 ISU 세계선수권 (● 네덜란드)

27일 ~ 3월 15일 여자농구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2월 말 ~ 3월 초 예정 프로축구 K리그 1·2 개막

2월

25일·30일 축구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 투르크메니스탄전 (25일) - 스리랑카전 (30일)

3월 ~ 20일 축구 AFC U-19 챔피언십 (● 우즈베키스탄)

19일 ~ 4월 4일 프로배구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5월 ~ 7일 쇼트트랙 2021 ISU 세계선수권 (● 네덜란드)

22일 ~ 28일 피겨스케이팅 2021 ISU 세계선수권 (● 스웨덴)

11일 ~ 14일 골프 PGA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 미국)

3월

2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 (● 미국)

3일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

16일 ~ 27일 사격 2021 ISSF 창원 월드컵 (● 한국)

1월 ~ 4일 골프 ANA 인스피레이션 (● 미국)

8일 ~ 11일 골프 마스터스 토너먼트 (● 미국)

20일 ~ 23일 골프 PGA 챔피언십 (● 미국)

4월

7일·15일 축구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 북한전 (7일) - 레바논전 (15일)

3일 ~ 6일 골프 US여자오픈 (● 미국)

17일 ~ 20일 골프 US오픈 (● 미국)

24일 ~ 27일 골프 KPMG 여자PGA 챔피언십 (● 미국)

23일 ~ 8월 8일 2020 도쿄올림픽 (● 일본)

15일 ~ 18일 골프 디오픈 챔피언십 (● 잉글랜드)

22일 ~ 25일 골프 에비앙 챔피언십 (● 프랑스)

16일 ~ 28일 농구 2021 FIBA 아시아컵 남자 본선 (● 인도네시아)

19일 ~ 22일 골프 AIG 여자오픈 (● 스코틀랜드)

지도자 루니 '굿 스타트'...더비 카운티 강등권 탈출

'웨인 루니(35) 체제'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더비 카운티가 4점 차 대승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등권에서 탈출했다.

더비 카운티는 3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세인트앤드루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원정 경기에서 버밍엄 시티를 4-0으로 완파했다.

그간 강등권인 22위에 있던 더비 카운티는 승점 19점(4승 7무 10패)을 쌓아 20위로 올라섰다. 22위 셰필드 웬즈데이와 격차는 승점 3점이다.

전임 필립 코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뒤 플레이 코치였던 루니가 감독대행을 맡으면서 더비 카운티는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

코퀴 감독 지도 아래 단 1승만 거두고 한 달 가까이 최하위에 머물던 더비 카운티는 루니 감독대행

체제에서 이날까지 3승 4무 1패를 기록하며 반전을 이뤄냈다.

루니 감독대행은 내친김에 하위권 탈출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수들이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주간 좋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1월 이적시장에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 약점을 보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루니는 불과 만 16세의 나이에 에버턴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 등장해 데뷔 시즌 6골, 그다음 시즌 9골을 넣었다.

루니처럼 프로 데뷔 초기에 충격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랬던 루니가 지도자로서도 훌륭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연합뉴스

마스터스 골프 출전권 받은 선수 84명

한국인은 임성재 유일

세계 정상급 골프 선수라면 해마다 성탄절 무렵에 기다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빅 달 뒤에 열리는 마스터스 초청장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에 개최되는 마스터스 초청장이 발송됐다.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은 선수는 모두 84명. 평생 출전권을 가진 역대 챔피언 20명이 최우선으로 초청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9명, 최근 3년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2명,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와 준우승자, 그리고 브리티시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도 초청장이 왔다.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공동 12위 이내에 입성한 6명에게도 성탄 선물이 전달됐다.

US오픈과 PGA챔피언십 공동 4위 안에 든 7명과 지난해 4월 이후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

회 우승자 12명도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았다. 10명은 연말 세계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한국 선수는 아쉽게도 임성재(22)가 유일하다. 임성재는 직전 대회 공동 12위 이내 입상 자격으로 출전권을 받았다. 임성재는 지난해 열린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했던 김시우(25)는 3년 시한이 만료됐고, 다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 이번 초청장 발송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 마스터스 출전 자격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마스터스 직전까지 치러지는 13차례 PGA투어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3월 30일자 세계랭킹에서 50위 이내에 진입하면 마스터스에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에

화순 출신 김종수씨 당선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제2대 회장 선거에서 화순 출신 김종수(60·사진) 전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이 당선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 회장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 확정됐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 회장은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코치(1991~2000년)와 감독(2001~2010년, 2012년 9월~2013년 3월)을 지내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사무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사직했다.

2015년 10월부터는 아시아배드민턴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